

AI 기술 일상화 ... 채용 심사하고 집안일 돕고

삼성·현대기아차 등 기업들 연구센터 열고 적극 투자·해외 협업 차량·세탁기·에어컨 등 음성인식 채택...콘텐츠 다양화 시도

인공지능(AI) 기술의 일상 생활 속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수만 명씩 몰리는 취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인공지능(AI)이 읽고 분석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추려내는가 하면, 차량 운전자의 비서 역할을 맡아 운전자와 의사 소통하며 운행을 돕는다. 인공지능 비서가 청소기를 움직이고 공기청정기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며 커피 머신에 누우면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 온도가 조절되는 등 영화 속 미래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더 나아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열고 집중적인 투자와 인재 영입 작업을 진행하는가하면, 해외 기업들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며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삼성, 가전제품에 AI 비서 넣고="청소해줘"라는 한 마디에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고 요리를 시작하면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 공기를 흡입하고 거실에서 보던 TV 장면은 엄마가 주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냉장고 스크린에서 이어서 보여준다.

늦은 밤, 취침을 위해 안방 침대에 누우면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은 수면 모드로 바뀌어 좋아하는 실내 온도로 맞춰진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2018 광주 국제 사물인터넷(IoT)·가전·로봇 박람회'에서 선보인 '삼성 홈 IoT'는 지능형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 지 예상하기에 충분하다.

삼성전자는 더 나아가 'AI 비서'인 빅스비를 내세워 이같은 기술을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스마트 기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에는 인공지능 '빅스비'가 지난해부터 탑재됐고 QLED TV와 광주사업장에서 만드는 세탁기, 에어컨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에도 음성인식 기능이 채택됐다.

삼성이 9일 미국 뉴욕에 문을 연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센터는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기술개발에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기아차, 차량에 AI 비서 앉히고=삼성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는 형태라면 현대·기아차는 국내외 기술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으며 기술 개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용 앱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 카카오와 손잡고 내놓은 서비스다. 내비게이션·음악·메시지·전화 등을 구글 인공지능(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차량에서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 SK텔레콤·KT와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시동을 걸고 차량 온도를 조절하는 등 자동차를 제어하는 '홈투카(Home2Ca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가 집안에서 통신사의 AI 스피커에 "시동 걸어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방식으로, ▲시동 온·오프 ▲문

열림·잠금 ▲비상등 점멸 ▲경적 울림 ▲전자차 충전 ▲차량 온도 설정 등 5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톡 기능을 차량에 적용한 신개념 커넥티드 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카카오톡에서 서비스되는 뉴스, 주식, 환율, 스포츠 정보, 음식주문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차량 내에서 동일하게 대화하듯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뿐 아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중국 바이두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커넥티드 카·음성인식·인공지능(AI) 로봇·사물인터넷(IoT) 등 4가지 분야 기술 개발에 나섰다.

◇채용 감독관에 기자 역할을 맡은 AI=AI는 올해 채용 시장의 화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 기업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이번 하반기 공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분석 지원 시스템을 도입, 동일 문장·타사 지원 자

기소개서를 활용한 불성실 지원자를 가려내는 한편, 지원자 성향에 따른 직무 적합도 판별 등의 분야에 활용한다. 롯데와 CJ도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다. 롯데의 AI 시스템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이용해 지원자가 조직과 직무에 어울리는 우수 인재인지를 판별하는 '필요인재부합도 분석'과 표절 여부를 통해 지원자의 진실성 및 성실성을 판단한다.

광주시도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인공지능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역량검사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는 인공지능 매칭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KBO리거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퓨처스리그 로봇기자 '케이봇(KBOT)'도 운영 중이다. 또 SK C&C는 의료진이 검체항상항생제를 입력하면 챗봇이 성별, 나이 등을 물어보며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을 추천하고 부작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개발, 선보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머리에 '예술'을 써요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8층 골프브랜드 '파리게이트' 매장에서 굿갯 범거지, 스냅백, 헌팅캡 등 다양한 디자인의 모자를 선보이고 있다. 파리게이트는 올 가을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헬로우 빈센트' 컬렉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상생'의 현대차

추석 앞 납품대금 조기 지급·온누리 상품권 구매

현대차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통해 상생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9일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1조 2350억원

을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 5개 회사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4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5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또 1차 협력사들도 추석 이전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3964억원, 1조1709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

를 위해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해왔다.

현대차그룹은 아울러 약 369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키로 했고 추석 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소외이웃과 결연시설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아울러 올 추석에도 약 900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업 70% "추석상여금 지급"

경총 조사 ... 1인당 평균 105만6000원·휴무 4.7일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에 대해 기업의 94%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대해 94.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4.1%, '동의하지 않는다'는 1.6%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88.9%였으나 300인 미만 기업에선 95.8%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이런 진단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됐다'(17.9%), '악화됐다'(43.1%) 등 전체적으로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중이 61.0%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35.7%였고, '개선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이들이 지급할 평균 상여금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0.2%로, 지난해(72.1%)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보다 4.1%포인트(77.3%→73.2%), 300인 미만 기업은 1.5%포인트(70.9%→69.4%)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05만6천원으로 작년(102만4천원)보다 3만2천원(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기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추석 연휴 기업들의 휴무일수는 작년보다 3.5일 줄어든 평균 4.7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보다 4.8일 줄어든 4.9일, 300인 미만 기업은 3.1일 감소한 4.7일이었다.

지난해 황금연휴로 불리며 평균 8.2일에 달할 만큼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가 길었던 탓에 올해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말로만' 전기차 활성화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21곳 충전기 '0'

광주-무안 고속도로 함평나비 휴게소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목포) 등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자료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21곳(11%)에는 여태껏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기가 '2기 이상' 설치된 곳은 전체(195개소)의 57%인 111개소였고 '1기'만 운영중인 휴게소는 63개소(32%)로 파악됐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목포방향 서산휴게소와 매송휴게소가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함안휴게소, 광주무안고속도로 무안방향 함평나비휴게소,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광주방향 강천산휴게소 등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이와관련, 오는 11월까지

이들 휴게소에 1~2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활한 장거리 운행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고속도로휴게소의 충전기 설치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82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2	18	24	26	39	40	1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009,843,917				9
2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49,422,392				61
3	5개 숫자일치	1,283,972				2,348
4	4개 숫자일치	50,000				112,065
5	3개 숫자일치	5,000				1,795,737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